

한미 FTA 3차 협상

윤곽 드러난 미국의 '본심'

의약품·자동차·농산물 개방 압박

택배·통신·법률 등 추가개방 요구도 거셀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주요 도전과제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SPS) 등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시장은 물품의 경우 의약품·자동차·농산물 등이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택배·통신·법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육심'〉=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주요 도전과제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위생·검역 등 4가지를 지적하면서 "농산물은 관세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쿼터제 등 시장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으며 의약품의 경우도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제(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FTA협상을 통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틀러 수석대표가 제시한 과제는 4가지이지만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위생 절차 등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사실상 교역 분야로는 의약품·자동차·농산물 등 3가지가 된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우리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국내 제약업계는 미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이 소비자 인식, 세계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그동안 거론해왔다. 미국 측은 1,2차 협상에서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계 변경과 함께 자동차 인증방식(표준),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규모가 21억8천만달러에 육박했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이 자국 농산물의 상위 5위 안팎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통신·법률 요구 집중〉=김중훈 수석대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추가 개방 요구 목록과 관련, "미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택배·통신·법률 등에서 관심사항 10여개를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는 페덱스 등 다국적 업체가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해있으나 국내 소규모 화물 택배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미국은 페덱스 등 다국적 택배업체가 한국내 소규모 택배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 및 규제 등을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통신의 경우는 현행 49%인 외국인 투자 제한에 대한 이견이 양국간에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합의문 한글 표현 논란〉=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문 한글 표현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훈 수석대표는 이날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는 반드시 '한글'로도 작성,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산물 셰이프가드 관철 위해 최선”

박홍수 농림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6일 "농산물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긴급수입제한(셰이프가드) 조치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FTA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은 섬유 부분에서 셰이프가드를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농업부분에서 이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아무래도 농산물 경쟁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개방 확대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셰이프가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 개방과 관련 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데다 쌀의 특수한 지위 등을 설명한다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창피한 광주문예회관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달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제공연 예술제 발레 갈라무대를 찾은 관객들은 짐통 속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했다. 며칠 뒤 열린 오페라 '아이다'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최측은 계속해서 '실내 온도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문예회관은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다' '최대한 온도를 낮춘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관객들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무대 뒤의 발레리나들 역시 불평을 쏟아냈다. 이고르 켈렌스키 등 출연진들은 한 스테이지가 끝난 후 샤워를 하고 의상을 갈아입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또 분장실에 모니터가 없어 무대 상황을 체크하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연 전 인터뷰에서 외국 무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연장'이라고 말했다. 출연진들은 "광주 최고의 시설이 맞느냐" "광주가 한국 몇대 도시에 드는 거냐"며 주춤를 당혹스럽게 했다. 과연 이들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광주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면 참담한 기분이 든다.

주최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10만원이 넘는 티켓을 사서 모처럼 문화의 향기에 젖어보려고 문예회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지하 4층의 컴컴한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사라진다. 바닥은 패어 있고 조명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까지 방치돼 있다.

이러니 매년 두달씩 회관 문을 닫고 갖는 무대·시설 정비 기간에는 대체 무엇을 '정비'하는 거냐는 불만도 나온다.

광주 문예회관은 지난 1991년 지어진 건물로 신설 공연장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것만은 사실이다. 문예회관의 시설 관리비는 연 3억2천만원, 올해는 3천만원으로 대극장 카페트를 교체했다. 예산이 적어 에어컨 시설은 개관 후 교체하지 못했고 부품 수리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게 회관측의 설명이다.

광주에 첨단 시설을 갖춘 아시아문화전당 내 공연장이 완공되는 건 2010년이다.

당분간 문예회관은 '문화중심도시'의 대표 문화공간 역할을 해야만 하는 숙명이다. 회관측은 예산 타당 할 게 아니다. 관객과 예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니터와 주차장 조영 설치 등이 거액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mekim@kwangju.co.kr

'작통권' 보수-진보 '설전'

보수와 진보 측 논객들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주제 토론회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인터넷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먼저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작통권 환수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 대표는 "한국의 안보에는 북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 전력으로 인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작통권 환수는 무조건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 거쳐야 할 중대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환수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며 "한미 양국이 50 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는 작통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작통권 환수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노태우 정권 시기 때부터"라며 "최근 노무현 정권의 자주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통권 환수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도 토론회에 보면 '외견'을 통해 "작통권 환수는 주권 제약이 아니라 주권 회복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상 위험을 가져올 만한 사항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6일 한나라당 광주·전남 당사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작통권 환수 논의 즉각 중단을”

한나라 광주·전남도당 규탄대회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은 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의 전시 작통권 조기 환수 주장은 포퓰리즘적 정치게임"이라고 비난했다.

초청 강사로 나선 강창희 최고위원은 "전시 작전통제권은 자주나 자존심의 문제라기 보다 전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문제인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를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나아가 차기 대선을 의식한 현 정권이 짧은 계층을 겨냥해 현행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꾸는 공약을 내걸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영 최고위원과 안재홍 광주시당위원장,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즉각 중단 ▲강력한 한미동맹 청사진 마련으로 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촉구하는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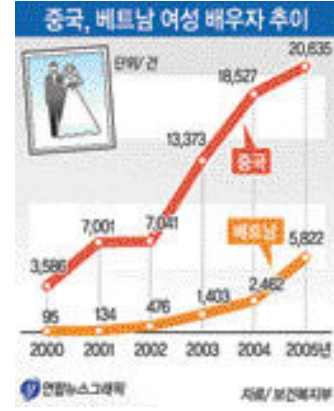
한국남-외국여가구 53%가 빈곤층

한국 남성-외국 여성 부부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는 11.3%에 그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국회에서 개최한 '200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11주년 기념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 빈곤 실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올렸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57.7%에 달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는 15.5%나 됐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만9천942명으로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는데 2005년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의 35.9%(2천885건)가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었다. 이들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1천535명), 중국(984명), 필리핀(198명) 등이 많았다. /연합뉴스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1가지 생약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수호 김동원